



the Parent press



LAUSD 학부모를 위한 뉴스레터

제 13판, 3호 • 2009년 여름

“우리 자녀를 위해서 - 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2009년도 학부모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



LAUSD 학부모들은 학부모 서밋이 제공하는 교육 워킹을 가득 채웠다. 교육위원과의 대화에서는 질문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

“그냥 애를 유치원에 내려다 놓고 1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라고 LAUSD의 제 13회 연례 학부모 서밋 즉 학부모 정상회담의 기조 연설인이신 마리 베이컨 박사가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의 동등한 파트너이어야만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4월 25일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09년 학부모 서밋의 5천여명의 참석인들에게 요구한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연례 테크놀로지 쇼우케이스인 인포테크와 공동으로 열렸고 컴퓨터 귀재와 영재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일반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학부모 컨퍼런스들 중 가장 큰 규모인 본 서밋 행사에는 교육 전문가, 교육구 최고 위원들 그리고 수천명의

학부모들이 세미나를 듣고, 다양한 대화와 메시지를 통해 학력 증진과 모든 학생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부모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몬 코티네즈 LAUSD 총교육감은 본 행사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서도 열심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니 너무 감격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배워서 힘을 키우면, 우리 자녀들이 받아 마땅한 변화를 그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마리 존슨 학부모 공조회 회장이 약속했습니다.

호세 샌도벌씨에게는 이번이 세번째로 참석하는 학부모 서밋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내 아이들을 돕고 학교에서의 지도자 역할을 행하는데 항상 도움이 되었어요,”라고 설명했으며 그분은 곰퍼스 중학교와 휘가로아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부모입니다. “오전에 자녀의 수학 문제 푸는 것을 돕는

2009 학부모 서밋, 2 페이지에서 계속

메시지
Ramon C. Cortines
총교육감



우리 학생의 부모와 보호자들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을 때도 항상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특히 이런 경기 불황에는 더욱 절실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학생과 교육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자녀가 매일 학교에 출석하고 제시간에 등교해서 배움에 대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하교할 때까지 잘 공부하는지

예산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모든 교실에는 교사가 있을 것이며, 학생이 필요한 교과서와 학습자료들도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니 많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확인해주시시오. 방과후, 숙제와 기타 모든 과제를 제대로 완성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막대한 예산 삭감을 겪는 이런 시기에 특히 더 도움이 필요합니다.

9 페이지 메시지에서 계속



LAUSD BOARD MEMBERS

President
 Mónica García

•

Marlene Canter
 Yolie Aguilar Flores
 Tamar Galatzan
 Julie Korenstein
 Marguerite LaMotte
 Richard Vladovic

ADMINISTRATIVE STAFF

General Superintendent
 Ramon C. Cortines

*Assistant Superintendent
 Specially Funded Programs/Parent
 Community Services*
 Rita Caldera

*Administrator
 Parent Community Services Branch*
 Christopher Downing

*Parent Community
 Involvement Specialist*
 Alvaro Alvarengo

Editor, Parent Press
 Harry Gerst

*Parent Community Services Branch
 Senior Facilitators*
 Martha Cardenas
 Stella Contreras
 Lisa Porter

Parent Community Facilitator
 Antonia Chavez

Chair: Parent Collaborative
 Mary Johnson

Chair: District Advisory Council
 Roberto Fonseca

*Chair: District English Learner
 Advisory Committee*
 Ruth Bautista

All inquiries should be sent to:
Parent Community Services Branch
 701 W. Cesar E. Chavez Avenue
 Los Angeles, CA 90012
 (213) 217-5272
 Fax: (213) 626-4644
<http://sfpc.lausd.k12.ca.us/pcsb>

Translated by
 LAUSD Translations Unit

Photography
 Ed Krieger



2009 학부모 서밋

“우리 자녀를 위해서 - 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1 페이지로부터

법을 배웠죠,”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부터 인터넷의 안전한 사용법까지 25여개의 다양한 주제로 워크샵이 제공되었습니다. 과거의 컨퍼런스와는 달리, 눈에 띄게 변화된 것은 워크샵에 보인 주의력과 참석 인원입니다. “워크샵에 대한 설문지에서는 더 길게 워크샵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대부분의 워크샵은 완전히 만원이었어요,”라고 허린다 노니스 서밋 회장이 보고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정보를 받았어요,”라고 센츄리 팍 학교 학부모이신 일레인 그린씨가 자녀의 읽기 공부 워크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위원들과의 대화 세미나에서는 모니타 가시아, 줄리 코렌스테인, 리차드 블래도빅씨에게 질문하기 위해 많은 학부모들이 줄을 섰는데,

교사 실적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학교 프로그램을 보호해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우수 자원봉사 서비스에 대해 연례 티오도어 알렉산더 상을 받은 LAUSD 학부모들: Sylvia Sosa, Herlinda Donis, Diane Evans, Bertha Rios, 그리고 Irma Munoz.



Sylvia Sosa, Irma Munoz, Bertha Rios.

위기에 맞서 싸우는 학부모들

이 번 학년도는 LASUD가 보낸 최근 몇년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산 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7월 1일까지는 추가로 1억3천백만불이 있어야만 하고, 다음 학년도 동안 최소 1억4천2백만불이 예산 삭감이 더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더불어 향후 2년 동안 1조3천억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상임 위원들은 이를 "절박한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교육 예산 위기를 타파하고자 노력에 부모들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 지키는 개와 같은 역할을 해야만 해요. 그냥 애들을 학교에 내려다 놓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더 이상 가능치 않습니다. 부모는 학교에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다루는 면에서 지도자 직을 담당해야 합니다."라고 오랜 기간동안 학부모 지도자로 일해 온 빌 링씨는 말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소속 여러 학교들은 자녀 교육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 LAUSD의 학교 자율 위원회는 - 학부모, 교사, 학생 및 직원들로 구성되며 - 실적 통지를 받은 2408 교사직과 106 카운슬러직을 재채용 즉 바이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샌퍼란도 밸리의 여러 학교의 부모들은 체육 교사가 계속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 타자나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수가 많아진 학급의 교사 업무량을 돕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학부모 봉사 스케줄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 버로우 중학교는 6 주 동안 8 번의 학부모 회의를 열어서, 학부모들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배웠고, 이를 통해 주 예산 위기로부터 학생당할 위험에 처한 버로우 중학교의 싱글 플랜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교사 실적에 대해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9월에 개학하고 학교에 왔을 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라고 놀랄 것이라고 쉐리 오스본 학부모 센터 국장은 예상합니다.

부모의 행동력을 추천시키기

2백명에 가까운 학부모 및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소교육구 #3 공청회에 참석하여 학교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본 행사를 도와준 마비스타 학부모인 케이트 앤더슨씨는 "좌절감이 크죠, 부모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해요, 특히 교육법을 알아보고, 교육위와 주 입법자들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해야죠,"라고 말합니다. 말린 캔터 교육위원은 교육법 개정을 도와줄 것을 학부모들에게 촉구했는데 특히, 유형별 자금 사용에 대한 엄격한 조건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재 및 재능 교육(GATE) 프로그램 자금의 경우,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 사용된 자금을 주에 되돌려 주어야만 합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학교가 이런 자금을 필요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의 열정과 의견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청중의 의견일치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대화"라고 불린 추가 세션이 7월에 재개될 것입니다.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kate.anderson@marvista.org로 이메일하여 추가 정보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소 교육구 #2 학부모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 멤버들은 LASUD 학부모들의 가정으로 보내기 전에 학부모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런 답변들은 모여져서 2008-09 학교 보고서로 작성되어 2010년 1월에 공개될 것입니다.

학부모 의견은 중요할 뿐 아니라, 이런 학부모 의견이 없다면 신규 학교 보고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교육구-차원의 설문조사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부탁드리는데, 이에는 수업의 질부터 교정 안전 및 학부모 참여도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원합니다. 이런 답변들은 모여져서 2008-09 학교 보고서로 작성되어 2010년 1월에 공개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연례 설문지는 부모, 학생 및 교사에 이미 배포되었는데, “각 학교의 수행도에 대한 한 장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에는 개선할 부분, 장려 또는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라고 샘 길스트랩 LAUSD 학교 보고서 팀은 설명합니다. 학교가 부모를 얼마나 환영하는지, 학부모가 교사 그리고 같은 학교의 부모들과 잘 교류하는지 그리고 집과 학교 사이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모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반드시 응답해야만 해요,”라고 제니 켈레다 랭커썸 초등학교의

부모는 말합니다.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5월에 자녀편으로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중고교생 부모의 약 50%는 설문지를 우편으로 받았으며, 온라인 상으로 답변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의견을 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답변 내용은 기밀에 부쳐집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교 수행도 평가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라고 라몬 코티네즈 LAUSD 총교육감은 말합니다. 리서치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자녀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고 합니다. 맥클레이 중학교 부모 거스 아랜다시는 이런 보고서에 대해 만약 부모가 진실되게 평가하고 교육구가 이런 부모의 평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합니다.

설문 응답 내용과 이런 내용을 학교와 가정에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기 위한 일련의 회의가 부모와 기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열릴 것이다.

문의 사항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설문지에 답하고자 한다면 <http://www.reportcard.lausd.net> 을 검색하십시오

서면 설문지에 기재된 코드 번호를 기입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코드 번호가 없다면 reportcard@lausd.net에 연락하십시오.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알려준다면 48시간 내에 코드 번호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부모와 학생은 토요일 워크숍을 통해 컴퓨터 전선 연결부터 최신의 학업용 소프트웨어 작동을 배운 후에야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엘 세레노 학부모들은 컴퓨터를 무료로 제공받는다

250여 엘 세레노 중학교 가정은 집집마다 컴퓨터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열악한 환경의 학생 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 자원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적 프로그램의 일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엘 세레노 6학년생 부모들은 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무료 컴퓨터를 받았는데, 컴퓨터 기구, 소프트웨어와 트레이닝을 제공하여 부모와 학생이 그들만의 컴퓨터 “가정 배움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집중적인 심의 과정을 거친 후에 엘 세레노 중학교가 선정되었고, “학교와 그 학교 부모들은 6학년은 중요한 시기라는 비전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교육에 컴퓨터를 최선으로 유용할 것인지에 대한 워크숍을 참여할 의욕이

높아야 합니다. 바로 그 학교가 엘 세레노였어 요,”라고 에미리 시마스 CFY 캘리포니아 국장이 설명합니다.

컴퓨터를 받은 학생과 부모는 주말 워크숍을 통해 컴퓨터와

입력된 1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영어 과목부터 물리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재미있어서 자신이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족의 유대감을 높이는데도 좋은 시간이 됩니다,”라고 CFY 신청서를 작성한 덕 프랭클린 교감은 말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수혜자 부모들 중 한 명인 마리슬

“학교와 그 학교 부모들은 6학년은 중요한 시기라는 비전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교육에 테크놀로지를 최선으로 유용할 것인지에 대한 워크숍을 참여할 의욕이 높아야 합니다....”

에미리 시마스 CFY 캘리포니아 국장

엔리케즈씨는 집에 새로 설치한 학습 러닝 센터를 매우 자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저도 직장에서 컴퓨터를 쓰지만 새로 받은 컴퓨터의 학업용 소프트웨어는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 트레이닝이 매우 좋았어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엘 세레노 중학교에게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CFY는 3년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매년 6학년생 가정에게 컴퓨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2011년까지,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집에 러닝 센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프랭클린씨는 말합니다.

First Break: 틴에이저를 위한 일자리



First Break 사무실에서 첫 직장 경험을 하는 LAUSD 학생들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여러 틴에이저 학생을 위해 LA의 취업 기회를 알아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기 불황에서 취업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틴에이저들이 일을 구하기는 더 힘듭니다. 그것이 First Break이 LAUSD 학생들에게 특히 소중한 이유입니다. First Break은 교육구 소속 14세부터 18세 이상의 학생들을 학교 밖의 취업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취업 센터입니다. 본 부서는 로스앤젤레스 대도시 지역의 취업건을 매년 2만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1973년에 출발한 LAUSD의 First Break는 많은 사업체와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학생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햄버거 굽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 장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취업 그리고 대학 학비 지원을 제의하는 사업체와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First Break 취업 개발인들 중 한 명인 빅터 곤잘레스씨가 말합니다. “법 집행, 요리학, 사무실/서류, 교육,

건강, 서비스 및 소매 세일즈 관련 취업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LA 웨리프록에는 익스플로러와 같은 유급 및 무급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First Break는 자체적으로 학생을 고용하며, 취업란에 추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사무실에서 인근 업주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14세부터 17세 학생들은 워퍼미 즉 취업 허락서가 있어야 합니다. First Break의 도움으로 지난 해 LASUD 본 부서를 통해 만2천부의 퍼미트가 취업한 학생들에게 발부되었습니다.

벨몬트 고교 졸업생인 제니퍼 로블레도는 현재 인근 병원의 입원 수속과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First Break 덕택이며 이를 통해 직업 기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많이 수줍어하고 안절부절하곤 했어요. 그런데 First Break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책임감을 배웠어요. 지금, 이 병원에서는 환자들과 소통하는 제 능력을 칭찬합니다.”라고 제니퍼씨가 말합니다. First Break에 대한 문의는 213-241-0878로 전화하십시오.

새로운 장소로 이사했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 서비스 부서는 이사 중입니다. 새 주소:

**1360 West Temple Street
Los Angeles, CA 90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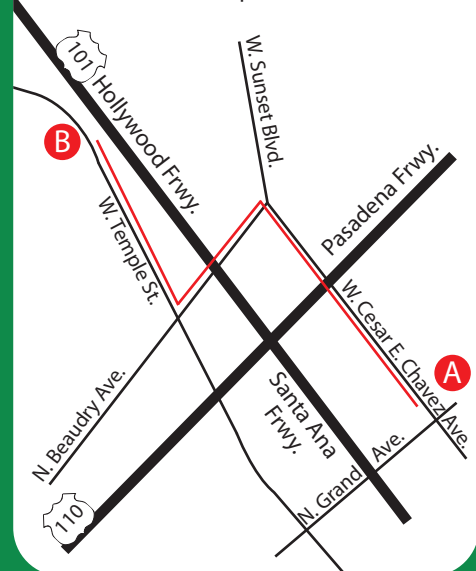
**(phone remains the same)
213-481-3350**

**(fax remains the same)
213-481-3392**

701 W. Cesar Chavez Avenue 위치한 사무실로부터 이곳으로 옮기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전 장소는 임대한 사무실이었고, 새 장소는 LAUSD 소유 건물입니다. 일반 사무실에 추가로 강당, 컨퍼런스 실 그리고 차일드케어 공간이 갖추어 집니다.

8월 1일까지는 웨스트 템플 길의 사무실이 전 가동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 장소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기를 고대합니다. 이 지도를 통해 이전 장소와 새 장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 A** – 701 W. Cesar E. Chavez Ave.
- B** – 1360 W. Temple St.



룸 104를 통해 들어오십시오

학부모 참여 스포트라이트

겉으로 보기에는 베렌도 중학교 부모와 학생들이 엘에이 동물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외출 행사는 미국에 온지 채 3년이 안되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중학생들의 영어 유창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독특한 인터세션 프로그램 수료식이기도 합니다. 일년의 여러 오프-트랙

시간 동안 열리는 4주 클래스인 ZooSchool은 이머전시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Emergency Immigrant Education Program-EIEP)의 일부입니다. 학습 내용은 과학과 영어를 통합한 것입니다.”라고 월터



캐스트로 EIEP 코ордин에이터는 설명합니다. “해당 학생들은 4주 동안 매일 동물원에서 모입니다. 동물에 대해서 배우죠; 동물 관리사를 인터뷰하고 과학 및 동물원학 체험 프로젝트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영어 학습을 목표로 합니다.”

인터세션 프로그램마다 하이라이트는 EIEP ZooSchool 패밀리 데이이며, 부모와 형제자매를 청중으로 삼아 학생은 동물원 탐방을 인도하고 자신이 배운 것을 영어로 프리젠테이션 합니다.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실 끝자리에 앉아서 수줍어하며 말 없던 아이들이죠. ZooSchool은 이 아이들에게 자신감, 영어력과 커뮤니티의 소속감을 줍니다.”라고 캐스트로씨가 말하는데 그 주변에는 EIEP 학생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코모도 용 동물의 생리, 행동 및 적응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ZooSchool은 LAUSD 연중수업제 멀티트랙 소속 중학생이면서 ELD 초급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비온드 벨부서에서 운영합니다.

최근 열린

소교육구 #6 패밀리 및 커뮤니티 페어 주제는 현 시기에 참으로 적절합니다.

LD 6가 후원한 본 행사에서는 “경기 불황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많은 자원과 정보를 제공했는데 행사 장소는 사우스이스트 고교였고 30개에 이르는 워킹숍은 차압 방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신용 복구와 같은 주제였습니다. 수백여명의 부모와 자녀가 참석하여 의료분야와 취업 기관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점심 식사와 상품도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원 및 복지 페어(The Resource and Wellness Fair)는 소교육구 6 그리고 교육구 내의 6개 도시에서 후원했습니다.



교육구를 떠나는 교육구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학부모의 작별 인사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은 LAUSD 학부모를 위해 수고하신 리타 켈데라씨에게 감사의 말을 합니다(왼쪽 두 번째).

“학부모/커뮤니티 서비스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큰 도전은 학부모들이 받아

마땅한 대접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PCSB의 교육감보로서 5년동안 역임한 후 이번 여름에 은퇴하시는 리타 켈데라씨는 말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의 강력한 옹호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과제는 학부모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원으로서 유용하는 법을 교직원에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미세스 켈데라씨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참여 중요성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LAUSD 행정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교육구를 지도해왔던 분들 중에는 리차트 알론조 소교육구 4 교육감, 카르멘 슈로이더 소교육구 5 교육감, 캐롤 트류스캇 소교육구 3 교육감 그리고 도널빈 앤튼 특수교육 교육감보들이 은퇴합니다.

미세스 켈데라씨는 작고하신 Dr. 티어도어 알렉산더씨의 후임으로 2004년도에 PCSB의 총책임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교육계에 36년동안 근무했는데-전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에서만 역임했습니다. “교사, 교장 그리고 교육구 행정관으로서 저는 학부모의 중요성과 기여도를 항상 높이 인정해왔습니다,”라고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올해 학부모 정상회담을 보세요. 학부모들이 함께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학부모 아웃리치 21세기 스타일

학부모 정상회담을 참석하기는 처음이예요. 이 행사 전화를 받고 참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어요,”라고 컨퍼런스 워킹샷들 중 하나를 가는 도중이었던 채이스 스트리트 학부모 루페 자라씨는 말합니다.

학부모 정상회담을 참석하기는 처음이예요. 이 행사 전화를 받고 참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어요,”라고 컨퍼런스 워킹샷들 중 하나를 가는 도중이었던 채이스 스트리트 학부모 루페 자라씨는 말합니다.

이런 전화 연락과 4십8만장의 정상회담 초대장은 학부모/커뮤니티 서비스 부서 행정관인 크리스토퍼 다우닝씨가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효과가 있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Connect-Ed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교육구가 구성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추가된 것입니다: 학부모, 교사, 일반 직원, 심지어 기상 시간을 알리는 전화 연락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메시지 연락 도구입니다. 다우닝씨의 전화 메시지는 녹음되어 놀라운 속도로 교육구 전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부모들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직접 전화로 메시지를 듣거나, 응답기, 끊긴 전화나 통화중에서 놓 전화 건수를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77%가 연락되었으니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폴 이쉬마루 최고 테크놀로지 국장이 보고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모든 LAUSD 학교는 Connect-Ed 연결망으로 구축되었고 일반 공지, 결석을 집에 알리는 전화, 비상 연락 그리고 학생이 공부를 잘 한다는 칭찬이나 혹은 염려 등을 미리 녹음해 둔 전화 메시지를 교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 현황을 확인해보세요. 중교교생이 첫 두 세 교사를 결석한 경우, 부모에게 아침 저녁으로 전화



광범위한 테크놀로지가 단지 두 사람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들은 쉐릴 루이즈와 폴 이쉬마루씨입니다.

연락하는 테크놀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석한 초등학생 부모에게 전화하여, 자녀가 아프면 “1번을 누르세요, 의사 예약 등으로 결석했다면 2 번을 누르세요”라고 즉시 학교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Connect-Ed를 작동한 첫 일년만에 벌써 출석률 향상이 있었습니다.

쉐릴 루이즈와 폴 이쉬마루씨가 테크놀로지를 작동시켰고, 지난 해, 3만5천 개의 메시지가 2천만 전화 연락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올해, 이 숫자는 5천만 전화 연락까지 도달할 것이며 이 시스템은 한번도 작동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메시지, 1 페이지로부터

자녀가 학교에 다녀와서 선생님이 실직했다고 걱정을 하면, 부모와 보호자들은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켜주십시오. 예산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모든 교실에는 교사가 있을 것이며, 학생이 필요한 교과서와 학습자료들도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니 많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물론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 일인당 학생 정원수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부모와 보호자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학생들도 이런 변화에 더 쉽게 적응할 것입니다.

자녀가 매일 출석하고, 제 시간에 등교해서 배움에 대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하교할 때까지 잘 공부하는지 확인해주십시오. 방과후, 숙제와 기타 모든 과제를 제대로 완성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변화란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지금의 예산 사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학생들에게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LAUSD의 학부모, 보호자 및 지원자들에게 교육구 예산을 결정하는 새크라멘토와 워싱턴 D. C.의 입법자들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도 도움이 되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런 시기에, 우리 학생을 안심시키는 것이 더 우선해야만 합니다. ●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http://www.lausd.net>를 검색하십시오.